

제6절 방울리(芳栗里)[속명 : 감율(甘栗)]

1. 마을의 자연환경

동쪽은 정명리(正明里) 곰실과 인접(隣接)하고, 서쪽은 이평2리(梨坪二里)와 닿아있으며 남쪽은 모천(某川), 북쪽은 삼산리(三山里)와 문장봉(文章峯)이 있다. 마을회관은 2010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. 마을 입구 울진지역의 동학 접주인 전의철 접장을 기리는 비가 서 있으며 동학과 연관된 유적과 전설이 다수 전해진다.

2. 마을의 역사

정선(旌善)전씨가 개척한 것으로 전해지며 옥면망월형(玉兔望月形)으로 인식되면서 마을 이름을 월야(月夜)라 불렀다. 앞산(山)을 문장대(文章臺)라 하고, 그 봉우리를 문장봉(文章峯)이라 하였다. 그 후 마을 주위에 밤나무가 많고 밤의 질(質)이 좋았으므로 감율(甘栗)로 개칭(改稱)하였다. 감율(甘栗), 방비(芳菲), 호전(虎田), 사전(沙田) 등 4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.

3. 가구 분포

총 42세대가 거주하며 전의 이씨(全義李氏), 안성 이씨(安城李氏), 평해 황씨(平海黃氏), 김해 김씨(金海金氏) 등이 분포하고 있다.

제7절 봉산1리(峰山一里)[속명 : 봉수(烽燧)]

1. 마을의 자연환경

동쪽은 동해(東海)에 접(接)하고, 서쪽은 뒷산으로 봉수산(峰燧山)이 솟아있으며, 남쪽은 봉산2리와 인접(隣接)하고, 북쪽은 정명천(正明川)이 동해로 흐르는 하류(下流)로 기성리와 접하고 있다. 마을회관은 1992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.